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2호 HYUNBULNEWS.COM 2026년 9월 2일(음력 7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피땀 어린 훈련이 무한한 기쁨 되길"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아이치 ·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조계종이 8월 26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1층 법당에서 선전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법회 직후 포교부장 정무 스님, 체육인 전법단장 무경 스님과 불자 선수 50여 명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글 ·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총무원장 선거, 경우 · 진우 스님 양자대결

정념 스님 8월 24일 사퇴 발표
선관위 비판…"경우 스님 지지"
진우 스님 "정념 스님 공약 계승"
24개 교구 선거인단 선출 완료
호법부 "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는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정념 스님은 8월 24일 발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사부대중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경책이자 희망이었으나 그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하게 된 저의 부족함에 대해 종도 여러분 앞에 고개 숙여 깊은 참회의 삼배를 올린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시대 새로운 불교 리더십으로 종단의 새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음을 회고한 정념 스님은 "현재의 간선제 구조, 제한된 선거인단 방식은 대중의 공의(公議)를 담아내기에 너무도 한계가 자명하다"고 지적하며 "선거인단이 대폭 확대되거나 대중의 공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개혁 없이는, 우리 종단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퇴 배경에는 지난 8월 19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전원 자격 이상 없음' 결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념 스님은 "후보 자격과 관련해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드러난 사안임에도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방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선관위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종단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의 사퇴로 종단의 선거 및 후보검증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고 종권 교체의 필요성을 사부대중이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념 스님은 경우 스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후보직을 내려놓지만 함께 출마한 기호 1번 경우 스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다"고 전한 정념 스님은 "경우 스님이 반드시 종권 교체를 이뤄내 이 낡은 종단 시스템을 혁신하고 AI시대 새로운 불교발전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정념 스님의 사퇴에 공식입장을 밝힌 후보는 진우 스님이다. 경우 스님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념 스님의 중도 하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부대중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해 함께 걷고자 했던 정념 스님의 원력을 수렴해 불교 중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념 스님이 제시한 △수행을 통한 종단 신뢰 회복 △대중과 함께 결정하는 공의의 종단 △중앙 권한의 교구 이양 등을 언급하며 "이런 좋은 공약들을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가 계승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진우 스님 선대위는 "현행 간선제에 대한 정념 스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승단의 전통과 종단의 위상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제38대 총무원장을 선출할 선거인도 선출됐다. 8월 19일 선운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는 총 240명의 교구 선거인을 선출했다. 여기에 중앙종회의원 81명을 더해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됐다.

이들 스님들은 오는 9월 3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대 총무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 선출이 마무리된 직후부터 후보 스님들은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경우 스님은 8월 21일에는 봉선사와 월정사, 26일에는 백양사·마곡사·용주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경우 스님은 "현장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와 방안 마련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봉선사·범어사·통도사·불국사·직지사·동화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진우 스님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종책"이라며 "제안받은 의견을 향후 종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호법부는 8월 21일 호법부장 도심 스님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하고,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법부터 기후위기까지 현장 중심 종단 되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⑥ 38대 집행부에 바란다

특별취재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기 집행부에 거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 각 단체 대표자들은 이번 선거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 종책을 결정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종책에 반영하는 소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치유하고 사부대중의 화합을 회복하길 당부했다.

지속성 · 현장성 강화

단체 대표자들의 공통적인 요구는 종책의 지속성과 현장성 강화다. 단발성 행사 후 지원과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대표적이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종단이 기후·생태 문제를 핵심 종책으로 설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찰림 보호 방안 마련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문명이 가져올 생태적 영향에 대응할 불교적 환경 윤리 마련을 주문했다.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을 위한 종책도 마찬가지다.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장 담마끼띠 스님은 "최소 10년 이상 학업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종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역시 장애인 불자들이 수행과 포교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을 '대상' 아닌 주체로

청년 전법 활성화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직장생활과 결혼, 육아 등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신행환경을 마련하고, 청년불자 네트워크와 청년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청년회 실태 조사, 중기적으로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때 청년불교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청년 전법 활성화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종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차기 집행부는 '불교를 알려주는 전법'에서 '불교와 함께 아픈 세상을 바꿔나가는 전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도조직 전문화 · 활성화

포교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도 차기 집행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우리 사회 다양한 현장에서 전법이 이뤄지는 만큼 포교사와 지도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디지털·AI 포교 인프라 구축 및 포교부와의 실천적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토양 마련"을 주문했다.

갈등 치유하고 사부대중 화합해야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종단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종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면에 전문 게재〉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① 13면

120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동국대학교 120주년

동국 120년을 넘어
미래 100년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쟁형 인재 양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동국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2026.09.09.(수) 10:00 ~ 09.11.(금) 17:00

